

무등산 군부대 이전 내년부터 본격화

추진협약 로드맵 제시

광주시·국방부, 대체후보지 선정

국방부, 이전비·사업추진방안 마련

공원관리공단,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12월까지 협약·내년부터 용역 실시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추진협의회'(이하 협의체)가 오는 12월까지 이전 협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위한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일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공식적으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에 뜻을 같이하고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국방부 등 관련부서 실무자 간에 관련 협의가 이뤄져 왔으나 정식 협의회를 구성

해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처음이다. 협의체는 이정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김종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는 우범기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주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 의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군부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부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 방안, 대체 후보지 선정 및 자연생태계 복원 방법 등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광주시와 국방부는 대체후보지 선정방안을,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사업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부대가 떠나고 난 뒤 무등산 정상 자연생태계 복원사업(10만8000여㎡)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예산 15억원을 들여서 추진한다.

앞으로 각 기관은 이러한 세부 내용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군부대 부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월까지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서는 대체 후보지 선정과 대체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 지자체 설득 방안 강구, 부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예산확보,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 협의회 구성 및 첫 회의는 무등산 정상 복원을 위한 사실상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크다"면서 "군부대 이전 로드맵은 차근차근 밟아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등산 정상인 천황봉 해발 1187m 고지에는 공군 제8989부대 예하 3포대가 1966년부터 주둔 중이다.



“저, 건강합니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열린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2만여명의 탐방객이 몰려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최근 위암 수술을 받은 윤장현 광주시장도 건강한 모습으로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눴다. <광주시 제공>

무등산 정상 개방... 2만 인파 역사에 취했다

개천절인 3일 열린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전국 각지의 탐방객 2만여명이 산 정상에 올라 은빛 역사 물결 등 가을 산의 절경을 만끽했다.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날 무등산 정상(해발 1187m)에 해당하는 지왕봉과 인왕봉 일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날 아침부터 산행에 나선 탐방객들은 은빛 역사가 아름다운 중봉과 백마능선, 장별재부터 입석대, 서석대를 지나 은빛 역사와 운해, 쪽빛 하늘이 어우러진 정상의 비경을 감상했다.

이날 개방 행사에는 지난달 23일 위암 수술을 받은 윤장현 광주시장도 참석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건강을 과시했다.

특히 이날 경찰이 교통 대책을 받고 무등산보호단체와 산악연맹, 국립공원사무소는 취약지역 질서 유지 활동에 나섰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헬기와 119구급차량이 현장에 배치됐으며 정상에서는 응급의료소가 운영됐다.

탐방객들은 서석대에서 신분확인을 거쳐 군부대 후문을 통해 정상에 올라 지왕봉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전망데크에서 광주 시가지와 정상의 풍경을 관람했다. 또한 정상에서는 무등산 사계절을 담은 사진 120여장의 전시와 ‘느리게 가는 우체통 엮어쓰기’ 행사가 열렸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다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재개방하기 시작했으며, 이번까지 총 13차례 개방 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는 군부대와 협의해 오는 11월 초 단풍 절정기가 끝나기 전에 한차례 더 개방할 계획이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1면 '호남선 KTX 개통 6개월'서 계속

원정 진로 주민 역시 고속철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수도권 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철 개통 전인 지난해 광주 11만명, 전남 23만명 등 34만명이 수도권 원정 진로를 받으면서 3900억원에 이르는 진로비가 역외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관광지 방문객 수는 크게 늘었다. 전남의 경우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고속철 개통 이후 매달 평균 75만271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차역인 목포를 비롯해 관광도시로 급성장한 여수, 순천만과 정읍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은 순천, 안도 청산도 등 섬을 찾는 외지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의 숙박 일정이나 소비 패턴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지 못해 방문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 역시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취임후 광주 첫 방문 김현웅 법무부 장관

“광주교도소 19일 삼각동 이전”



각화동 부지 주민에 이익되도록 활용

국가 발전 저해하는 부정부패 척결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오는 19일 광주교도소를 북구 삼각동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광주교도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초 지난 6월 광주교도소를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진·출입 도로 개설, 민원인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조정 등으로 시일이 걸렸다”며 “문제점들이 다 해소된 만큼 오는 19일께 원만히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이전 후 각화동 부지 활용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지역 여론을 반영해 지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북구 각화동 현 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재전명했다.

김 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최고의 임무”라며 “그동안 법무·검찰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아직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고질적인 적폐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 없이는 국가 발전,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며 “공직 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건전성 저해 비리,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초대 원장에 김병석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원의 초대 원장에 김병석(51) CJ E&M 자문역을 임명한다고 4일 밝혔다.

장흥 출신으로 광주교, 고려대 경제학과, 중앙대 예술경영대학원을 나온 김 원장은 27년 동안 문화예술 및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경영인이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단에서 공연 사업 부문을 담당할 것을 시작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사업팀장, CJ엔터테인먼트 및 CJ E&M의 공연사업 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한국 뮤지컬 작품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작품 제작투자 등을 선도, 공연 콘텐츠 산업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문체부는 “김 원장이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의 전문경영인으로서, 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융복합 콘텐츠를 창·제작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교류·유통하는 아시아문화원의 원장으로서 책임자”라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원은 지난 3월 개칭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신설되는 기관으로서, 11월 말 공식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창·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원장 임기는 2년이다.

/ 윤영기기자 penfoot@

남북, 이산가족 상봉 100명 최종 명단 8일 교환

남북이 오는 8일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

상봉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지난달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이 오는 8일 판문점에서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주고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명단에는 이산가족과 부모·형제자매·친인척의 이름, 고향, 주소 등이 담긴다. 앞서 한적은 지난달 16일 북측이 의뢰한 이산가족 명단 200명의 생사확인 작업에 들어가 4일까지 확인을 마무리했다. 그 결

과는 5일 북측에 전달한다. 또 지난달에 북측에 의뢰한 남측 이산가족 250명의 북측 가족 생사 확인 결과는 5일에 받는다. 한적은 이 결과를 토대로 상봉 의사 등을 점검한 뒤 7일까지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확정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오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상봉 하루 전날 강원도 속초 속소에 집결해 통일부 주관 방북교육을 받고 이튿날 금강산의 민남 장소로 가게 된다.

/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의원

ICL(안내렌즈삽입술)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경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미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광고영업사원 모집

창사 64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통지 광주일보사가 참신한 인원을 널리 구합니다. 신문과 방송, 모바일이 어우러진 본격적인 융합미디어 체제를 갖춘 광주일보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모집대상**
가. 모집부서: 광고영업(남 0명, 여 0명)
● 최종합격자에게 회사 규정에 의한 직위 부여
나. 전형방법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
다. 자격 및 대상
(1)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각종 영업부문 경력자 우대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재(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출서류**
가. 이력서 1 통
나. 자기소개서 1 부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부
- 전형일정**
가. 서류접수: 2015. 10. 5(월) ~ 10. 12(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10. 14(수) 개별통보
다. 면 접: 2015. 10. 15(목)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15. 10. 16(금)
- 서류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16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본부(☎ 220-0514 우. 61482)

※우편접수는 2015. 10. 12(월) 소인분까지 유효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주일보